

##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와 의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보건학과  
재활의학과 기술학교실

어경홍, 이충희

### ABSTRACT

### Job Satisfaction and Job Understanding of Physical Therapists in Korea

Kyoung Hong Uh, R.P.T., M.P.H.

Chung Hwi Yi, R.P.T., B.P.H.

*Section of Rehabilitation Medical Technology, Dept.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s and their job satisfaction, job understanding.

The subjects were those physical therapists attending the Spring Seminar of the K.P.T.A. on May 24, 1986 who replied and returned the study questionnaires. We analysed 290 questionnaires by percentage,  $X^2$ -test in Yonsei University Computer Cent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bjects consisted of 61 (21.0%) male and 229 (79.8%) female, and of age groups, the 21-30 years (89.7%) group was the largest. The mean age was  $26.0 \pm 2.6$  years.
2.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age, sex, work place but the job status, and average monthly salary were significant.
3. Age, job status, and work place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job understanding but marital status, job career, average monthly salary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job understanding.

## 차례

- I. 서론
  - II. 연구방법
    - A. 조사대상 및 시기
    - B. 연구도구
    - C. 자료수집
    - D. 자료처리 및 분석
  - III. 조사결과
    - A. 일반적 특성
    - B. 직무민족도
    - C. 직무인식도
  - IV. 고찰
  - V.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료의학과 더불어 재활 분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재활 분야에서 물리치료사 고유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직접 환자와 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는 직무에 대한 만족정도와 태도가 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Herzberg(1976)는 만족감이 직무수행과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Kahn(1965)은 직무만족과 생산성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Porter 와 Lawler(1968)는 직무만족 정도가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그 외에도 전문직에 있어서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다(Love, 1977; Marthy, 1977; McMahon 등, 1977; Oliver, 1978). 유명위(1983)는 직무만족이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호원(김신혜, 1965; 우옥자 등, 1979; 이종영, 1979; 정현숙, 1984; 방용자, 김혜자, 1985), 임상병리사(김도희, 1980; 김혜은, 1985), 의무기록사(민병옥, 1985), 사무직원(고성진, 1985; 이성은, 1985)에 대한 직무만족 연구가 있었으나 물리치료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Longest(1974)는 인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하며 행

정자는 직원의 욕구를 병원이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은 재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와 직무인식을 조사하여 상호 관련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A. 조사대상 및 시기

1986년 5월 2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의 춘계 학술대회에 참여한 69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 B.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서를 사용하였고 질문서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0 문항, 업무 관련 문항 3 문항, 직무만족과 관련된 문항 10 문항, 직무인식(태도)과 관련된 문항 8 문항으로 총 31 문항이었다.

직무만족과 직무인식에 대한 문항은 고성진(1985)이 직무만족과 직무인식에 관하여 여러 문헌을 참고로 만든 문항을 인용하였다.

### C. 자료수집 방법

1985년 5월 24일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회원에게 입장시 400매의 질문서를 나눠주고 퇴장시 320매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30명을 제외한 2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D.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90매의 질문서를 부호화하여 카드에 천공한 다음 연세대학교 전산센터에 입력시켰다. 분석할 때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였다.

직무만족과 직무인식 정도는 Likert 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직무인식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일반적 특성과 빈도를 백분율과 빈도로 산출하고 직무만족 문항과 직무인식 문항은 총 합계 점수를 산출한 후 경향을 알기 위해 산출평균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 직무인식 정도와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chi^2$  검정을 하였다.

## E.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등도(hight)**: 직무민족 측정시 10개의 문항에 각각 5점씩을 부여하여 총 50점 중 30.5점 이상을 얻은 것. 직무인식 측정시 8개 문항에 각각 5점씩 부여하여 총 40점 중 24.4 점 이상을 얻은 것.

**중등도(medium)**: 직무민족 측정시 총 50점 중 15.5부터 30.4까지의 점수를 얻은 것.

직무인식 측정시 총 40점 중 12.4부터 24.3까지 얻은 것.

**하등도(low)**: 직무민족 측정시 총 50점 중 15.4 이하의 점수를 얻은 것.

직무인식 측정시 총 40점 중 12.3 이하의 점수를 얻은 것.

## III. 조사 결과

### A. 일반적 특성

응답자 총 290명 중 남자가 61(21.0%) 명이었으며, 여자는 229(79.0%) 명으로 남녀의 비는 2:8 이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1~30세 사이의 연령총이 260(89.7%) 명이었고, 이들 중 여자는 214(73.7%)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각 비율은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조사표에 의해 파악된 대상자의 각종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2, 3, 4).

### B. 직무민족도

#### 1. 연령별 직무민족도

총 290명 중 「중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234(80.7%) 명이었으며, 21~30세 사이의 연령총에서 「중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209(72.1%)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의 차이가 없었다(표 5).

#### 2. 성별 직무민족도

성별로 본 직무민족도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중등도」의 여자로서 184(63.4%) 명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상등도」의 남자로서 3(1.0%) 명이었으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의 차이가 없었다(표 6).

#### 3. 균무처 소재지별 직무민족도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289명을 대상으로 균무처 소재지별로 본 직무민족도의 분포는 서울에서 균무하고 있는 치료사가 147(50.9%) 명, 지방에서 균무하고 있는 사람이 142(49.1%) 명으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중등도」의 직무민족도를 가진 치료사가 233(80.6%) 명이었다.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 4. 균무처별 직무민족도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한 총 281명 중에서 종합병원에서 균무하고 있는 사람이 129(45.9%) 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개인의원에서 균무하는 사람이 79(26.1%) 명이었다. 직무민족도는 종합병원에 균무하는 사람 중 「중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106(37.7%) 명으로 나타났으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 5. 직위별 직무민족도

무응답자 10명을 제외한 280명 중에서 일반치료사로 균무하는 사람이 239(85.4%) 명이었으며, 수석 치료사는 41(14.6%) 명이었다. 직무민족도는 일반치료사로써 「중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193(68.9%)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등도」와 「하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각각 4(1.4%) 명으로 가장 적었다.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sex

Sex	Age				Total Cases (%)
	20yrs or less Cases (%)	21 - 30 Cases (%)	31 - 40 Cases (%)	41yrs or over Cases (%)	
Male	-	46 (15.8)	12 (4.1)	3 (1.0)	61 (21.0)
Female	1 (0.3)	214 (73.7)	10 (3.4)	4 (1.4)	229 (79.0)
Total	1 (0.3)	260 (89.7)	22 (7.6)	7 (2.4)	290 (100.0)

$$X^2 = 18.89583 \quad D.F. = 3 \quad P < 0.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ses (%)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ses (%)
Sex	Male	61 (21.0)	Job Status	Staff P.T.	239 (82.4)
	Female	229 (79.0)		Chief P.T.	41 (14.1)
	Total	190 (100.0)		Others	10 (3.1)
				Total	290 (100.0)
<hr/>					
Age	20 - 30 yrs.	261 (90.0)	Academic Career	Junior College	260 (89.7)
	31 - 40 yrs.	22 (7.5)		Under Graduated	28 (9.7)
	41 yrs. or over	7 (2.4)		Graduate School	1 (0.3)
	Total	290 (100.0)		Other	1 (0.3)
				Total	290 (100.0)
<hr/>					
Marital Status	Married	68 (23.5)	Job Experience	12 mos. or less	104 (35.9)
	Unmarried	221 (76.2)		13 - 24 mos.	61 (21.0)
	Others	1 (0.3)		25 - 36 mos.	46 (15.9)
	Total	290 (100.0)		37 - 48 mos.	33 (11.3)
				49 - 60 mos.	10 (3.5)
<hr/>					
Religion	Christian	100 (34.5)	Average Monthly Salary (unit: ₩10,000)	61 mos. or over	36 (12.4)
	Roman Chatholician	68 (23.4)		Total	190 (100.0)
	Buddhism	29 (10.0)			
	Non-religious	93 (32.1)			
	Total	290 (100.0)			
<hr/>					
Work Place	General Hospital	129 (44.5)	Location of Work place	Seoul	147 (50.7)
	Local Hospital	47 (16.2)		Kyoungki Province	95 (32.8)
	Clinic	79 (27.2)		Kangwon "	14 (4.8)
	Rehabilitation Center	24 (8.3)		Choongchung "	7 (2.4)
	Special Education School	2 (0.7)		Chunla "	11 (3.8)
	Others	9 (3.1)		Kyungsang "	15 (5.2)
	Total	290 (100.0)		Others	1 (0.3)
				Total	290 (100.0)

\* P.T.: Physical Therapist

\*\* yrs.: Years

\*\*\* mos.: Months

Table 3. Duty hours per day

	Duty Hours	Cases (%)
Weekday	* 8 hrs.	169 (58.3)
	8.5 - 9 hrs.	101 (34.8)
	9.5 hrs or over	20 (6.9)
	Total	290 (100.0)
Saturday	4 hrs. or less	105 (36.2)
	4.5 - 8 hrs.	152 (52.4)
	8.5 hrs.	33 (11.4)
	Total	290 (100.0)

\* hrs.; Hours

Table 4. Average number of treated patient per physical therapist per day

* No. of Treated Pt.	** Cases (%)
10 Pt. or less	35 (12.1)
11 - 20	101 (34.8)
21 - 30	86 (29.6)
31 Pt. or over	58 (20.0)
Total	290 (100.0)

\* No.; Number

\*\* Pt.; Patient

Table 5. Distribution of age and job satisfaction

Age SAT \	20 yrs. or less Cases (%)	21 - 30 Cases (%)	31 - 40 Cases (%)	41 - 50 Cases (%)	51 yrs. or over Cases (%)	Total Cases (%)
High	-	7 (2.4)	3 (1.0)	-	-	10 (3.4)
Medium	1 (0.3)	209 (72.1)	18 (6.2)	5 (1.7)	1 (0.3)	234 (80.7)
Low	-	44 (15.2)	1 (0.3)	1 (0.3)	-	46 (15.9)
Total	1 (0.3)	260 (89.7)	22 (7.6)	6 (2.1)	1 (0.3)	290 (100.0)

 $\chi^2 = 0.71354$ 

D.F. = 8

 $P > 0.05$ 

Table 6. Distribution of sex and job satisfaction

Sex SAT \	Male (%)	Female (%)	Total (%)
High	3 (1.0)	7 (2.4)	10 (3.4)
Medium	50 (17.2)	184 (63.4)	234 (80.7)
Low	8 (2.8)	38 (13.1)	46 (15.9)
Total	61 (21.0)	229 (79.0)	290 (100.0)

 $\chi^2 = 0.86713$ 

D.F. = 2

 $P > 0.05$ 

Table 7. Distribution of site of work place and job satisfaction

Site SAT \	Seoul (%)	District (%)	Total (%)
High	3 (1.0)	7 (2.4)	10 (3.5)
Medium	118 (40.8)	115 (39.8)	233 (80.6)
Low	26 (9.0)	20 (6.9)	46 (15.9)
Total	147 (50.9)	142 (49.1)	289 (100.0)

 $\chi^2 = 2.33543$ 

D.F. = 2

 $P > 0.05$

Table 8. Distribution of work place and job satisfaction

Work Place SAT	* General Hosp. Cases (%)	Local Hosp. Cases (%)	Local Clinic Cases (%)	** Rehab. Center (SES) Cases (%)	*** Total Cases (%)
High	5 (1.8)	2 (0.7)	2 (0.7)	1 (0.4)	10 (3.6)
Medium	106 (37.7)	41 (14.6)	57 (20.3)	21 (7.5)	225 (80.1)
Low	18 (6.4)	4 (1.4)	20 (7.1)	4 (1.4)	46 (16.4)
Total	129 (45.9)	47 (16.7)	79 (26.1)	26 (9.3)	281 (100.0)

 $\chi^2 = 7.44491$ 

D.F. = 6

P &gt; 0.05

\* Hosp.: Hospital

\*\* Rehab.: Rehabilitation

\*\*\* SES : Special Education School

Table 9. Distribution of job status and job satisfaction

Job Status SAT	Staff *P.T. Cases (%)	Chief P.T. Cases (%)	Total Cases (%)
High	5 (1.8)	4 (1.4)	9 (3.2)
Medium	193 (68.9)	33 (11.8)	226 (80.7)
Low	41 (14.6)	4 (1.4)	45 (16.1)
Total	239 (85.4)	41 (14.6)	280 (100.0)

 $\chi^2 = 7.58754$ 

D.F. = 2

P &lt; 0.05

## 6. 월평균 임금별 직무만족도

월평균 임금은 20~29 만원을 받는 사람이 131 (4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 만원 이상을 받는 치료사는 10(3.4%)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20~29 만원을 받는 사람중에 「중등도」의 직무만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103(35.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Table 10. Distribution of average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unit: ₩10,000)

Salary SAT	19 or less Cases (%)	20 ~ 29 Cases (%)	30 ~ 39 Cases (%)	40 ~ 49 Cases (%)	50 ~ 59 Cases (%)	60 or over Cases (%)	Total Cases (%)
High	-	3 (1.0)	2 (0.7)	2 (0.7)	3 (4.0)	-	10 (3.4)
Medium	4 (1.4)	103 (35.5)	71 (24.5)	35 (12.1)	13 (4.5)	8 (2.8)	234 (80.7)
Low	4 (1.4)	25 (8.6)	12 (4.1)	3 (1.0)	-	2 (0.7)	46 (15.9)
Total	8 (2.8)	131 (45.2)	85 (29.3)	40 (13.8)	16 (5.5)	10 (3.4)	290 (100.0)

 $\chi^2 = 25.19582$ 

D.F. = 10

P &lt; 0.05

### C. 직무인식도

응답자 총 290명 중 「중등도」의 직무인식도를 가진 치료사가 150(5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등도」는 131(45.2%)명, 「하등도」는 9(3.1%)명으로 95% 이상의 치료사가 높은 직무인식도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질문항목중 「결혼여부」, 「근무경력」, 「월평균 임금」과 직무인식도의 비율의 분포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를 나타내었다.

#### 1. 연령별 직무인식도

연령별로 본 직무인식도의 분포는 21~30세 사이에서 「중등도」의 직무인식도를 가진 치료사가 137(47.2%)명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같은 연령층에서 「상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114(39.3%)명으로써 21~30세 층에서는 86.5%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96.9%가 높은 직무인식도를 나타냈으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 2. 직위별 직무인식도

무용답자 10명을 제외한 280명중 일반치료사로서 「중등도」의 직무인식도를 나타낸 치료사가 126(45.0%)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상등도」의 직무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105(37.5%)명으로 나타났으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 3. 결혼여부별 직무인식도

응답자 290명중 미혼인 치료사가 221(76.2%)명이었으며, 결혼한 사람이 68(23.4%)명이었다. 이들 중 미혼인 치료사로서 「중등도」의 직무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123(42.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상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91(31.4%)명이었다.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13).

#### 4. 근무경력별 직무인식도

근무경력은 12개월 이하의 치료사가 104(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9~60개월 사이의 경력을

Table 11. Distribution of age and job understanding

Age UND	20yrs or less Cases (%)	21 - 30 Cases (%)	31 - 40 Cases (%)	41yrs or over Cases (%)	Total Cases (%)
High	1 (0.3)	114 (39.3)	14 (4.8)	2 (0.6)	131 (45.2)
Medium	-	137 (47.2)	8 (2.8)	5 (1.7)	150 (51.7)
Low	-	9 (3.1)	-	-	9 (3.1)
Total	1 (0.3)	260 (89.7)	22 (7.6)	7 (2.1)	290 (100.0)

$$\chi^2 = 4.492450$$

$$D.F. = 6$$

$$P > 0.05$$

Table 12. Distribution of job status and job understanding

Job Status UND	Staff P.T. (Cases %)	Chief P.T. (Cases %)	Total Cases (%)
High	105 (37.5)	21 (7.5)	126 (45.0)
Medium	126 (45.0)	20 (7.1)	146 (52.1)
Low	8 (2.9)	-	8 (2.9)
Total	239 (85.4)	41 (14.6)	280 (100.0)

$$\chi^2 = 1.88943 \quad D.F. = 2 \quad K \quad P > 0.05$$

가진 치료사는 10(3.4%)명으로 가장 적었다. 근무경력별로 본 직무인식도는 12개월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중등도」의 인식도를 나타낸 사람이 57(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상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45(15.5%)명으로 나타났다.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14).

#### 5. 월평균 임금별 직무인식도

월평균 임금별로 본 직무인식도는 20~29만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 중 「중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76(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상등도」

를 나타낸 치료사가 50(17.2%)명으로 나타나었으며,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5).

#### 6. 근무처 소재지별 직무인식도

부응답자 1명을 제외한 289명 중 「충등도」 이상의

직무인식도를 가진 치료사가 280(96.9%)명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치료사에게 있어서 높은 직무인식도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서울과 지방의 분포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6).

Table 13. Distribution of marital status and job understanding

Marital Status	Married (%)	Unmarried (%)	Divorced (%)	Total (%)
UND				
High	40 (13.8)	91 (31.4)	—	131 (45.2)
Medium	27 (9.7)	123 (42.4)	—	150 (51.7)
Low	1 (0.3)	7 (2.4)	1 (0.3)	9 (3.1)
Total	68 (23.4)	221 (76.2)	1 (0.3)	290 (100.0)

$$\chi^2 = 37.95524$$

$$D.F. = 4$$

$$P < 0.05$$

Table 14. Distribution of job experience and job understanding

Job Experience UND	12mos or less Cases (%)	13 - 24 Cases (%)	25 - 36 Cases (%)	37 - 48 Cases (%)	49 - 60 Cases (%)	61 - 72 Cases (%)	73mos or over Cases (%)	Total Cases (%)
High	45 (15.5)	26 (9.0)	24 (8.3)	13 (4.5)	5 (1.7)	7 (2.4)	11 (3.8)	131 (45.2)
Medium	57 (19.7)	31 (10.7)	22 (7.6)	20 (6.9)	5 (1.7)	3 (1.0)	12 (4.1)	150 (51.7)
Low	2 (0.7)	4 (1.4)	—	—	—	3 (1.0)	—	9 (3.1)
Total	104 (35.9)	61 (21.0)	46 (15.9)	33 (11.4)	10 (3.4)	13 (4.5)	23 (7.9)	290 (100.0)

$$\chi^2 = 27.12550$$

$$D.F. = 12$$

$$P < 0.05$$

Table 15. Distribution of average monthly salary and job understanding (unit: ₩10,000)

Salary UND	19 or less Cases (%)	20 - 29 Cases (%)	30 - 39 Cases (%)	40 - 49 Cases (%)	50 - 59 Cases (%)	60 or over Cases (%)	Total Cases (%)
High	1 (0.3)	50 (17.2)	37 (12.8)	29 (10.0)	10 (3.4)	4 (1.4)	131 (45.2)
Medium	6 (2.1)	76 (26.2)	45 (15.5)	11 (3.8)	6 (2.1)	6 (2.1)	150 (51.7)
Low	1 (0.3)	5 (1.7)	3 (1.0)	—	—	—	9 (3.1)
Total	8 (2.8)	131 (45.2)	85 (29.3)	40 (13.8)	16 (5.5)	10 (3.4)	290 (100.0)

$$\chi^2 = 22.8492$$

$$D.F. = 10$$

$$P < 0.05$$

Table 16. Distribution of site of work place and job understanding

Site UND	Seoul (%)	District (%)	Total (%)
High	70 (24.2)	60 (20.8)	130 (45.0)
Medium	73 (25.3)	77 (26.6)	150 (51.9)
Low	4 (1.4)	5 (1.7)	9 (3.1)
Total	147 (50.9)	142 (49.1)	289 (100.0)

$$X^2 = 0.90077 \quad D.F. = 2 \quad P > 0.05$$

#### IV. 고 칠

290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 근무실태,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 A. 일반적 특성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남자가 61(21.0%)명, 여자는 229(79.0%)명으로 여자가 월등하게 많았다. 이재학(1982)에 의하면 남자 324(41.2%)명, 여자 463(58.8%)명이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물리치료사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대에 여성의 분포가 높았고(73.7%) 이는 여자의 두드러진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자체의 안전성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외의 연령, 결혼 여부, 종교, 학력 등의 10개 변수가 조사되었다. 연령은 20대가 주였으며, 결혼 여부에서 기혼(23.5%), 미혼(76.2%)으로 미혼자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근무자는 종합병원(44.5%)이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는데 여자 물리치료사의 결혼으로 인한 빈번한 이직, 또는 퇴직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죽련된 물리치료사의 빈번한 교체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며 결혼 후에도 근무가 보장되는 직장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즉, 물리치료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결혼으로 인한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많은 물리치료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 중에 8시간 30분 이상을 근무하는 응답자의 수가 41.7%이

었고 주말에도 4시간 30분 이상을 근무하는 응답자가 63.7%이었다. 이는 물리치료사들이 대부분 병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물리치료사들의 1일 평균 치료 환자수를 조사한 결과 11명~20명 사이가 34.8%로 가장 많았다. 박찬의(1982)에 의하면 1일 평균 치료 환자수가 종합병원에서 12명, 병원에서 19명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병원급에 따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의 평균을 구하였다. 1일 평균 25명으로 1982년 보다도 훨씬 과중한 부담을 물리치료사들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B. 직무만족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연령, 성, 근무처 소재지, 근무병원과 직무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 임금, 직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고성진(1985)은 성별, 연령별, 학력, 직업, 근무기간과 같은 응답자 속성별 직무만족도 및 동기 부여 정도를 비교한 결과, 직무 만족도에서 연령, 직업, 근무기간 세 변수가 다르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를 나이가 들면서 책임감이 커지거나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자신들의 기대를 현실 수준으로 조정시키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보상에 대해 보다 만족하기 때문에 직무만족과 정의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 C. 직무인식 정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직위, 결혼 여부, 경력, 월평균임금, 근무처 소재지와 직무인식 정도를  $x^2$  - 검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무만족과는 달리 결혼 여부,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월평균 임금에서는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일 때 보다 기혼일 때 직무인식도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경력이 1년 이하일 때 직무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문서 구성에서도 조직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조사하지 못하고 조직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변수만을 조사하였기 때-

문에 자료 해석시 그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현

### V. 결 론

1986년 5월 2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의 춘계 학술대회서 참가하였던 회원중 질문서의 내용에 충실했으면 290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 총 290명 중 남자가 61(21.0%)명, 여자는 229(79.0%)명으로 남녀의 비는 2:8이었으며, 21~30세 사이의 연령중이 260(89.9%)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6.0 \pm 2.6$ 세이었다.

2. 직무민족도는 「중등도」가 80.7%, 「하등도」가 15.9%, 「상등도」가 3.4%의 순위였으며, 연령별, 성별, 근무처 소재지별, 근무처별로 본 직무민족도의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직위별, 월평균 임금별 직무민족도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p < 0.05$ ) 일반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중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193(68.9%)명이었으며, 월평균 임금 20~29만원 사이의 봉급을 받는 치료사 중에 「중등도」의 민족도를 나타낸 사람이 103(35.5%)명을 차지하였다.

3. 직무인식도는 「중등도」가 51.7%, 「상등도」가 45.2%, 「하등도」가 3.1%의 순위이었으며, 연령별, 직위별, 근무처 소재지별로 본 직무인식도의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별, 근무경력별, 월평균 임금별 직무인식도의 각 비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p < 0.05$ ) 미혼인 사람으로서 「중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123(42.4%)명이었으며, 근무경력 12개월 이하인 사람 중 「중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57(19.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29만원사이의 봉급을 받는 사람중 「중등도」의 인식도를 가진 사람이 76(26.2%)명으로 가장 많았다.

4. 직무민족도와 직무인식도의 「상등도」의 비율을 볼 때 직무민족도의 「상등도」의 비율은 3.4% 이었으나, 인식도는 「상등도」의 비율이 45.2%를 차지하여 좋은 대조를 나타내 주었다.

1. 고성진: 우리나라 병원의 조직 구조와 직종별 동기부여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 김도희: 임상병리사의 근무 실태와 직무민족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3. 김혜온: 임상병리사와 타 의료기사간의 직무민족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4. 민병우: 의무기록사의 직무민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병원협회지 5: 42~46, 1985.
5. 민인식, 구본권: 장애자 복지요원의 사기 조사, 재활 14(13):49~59, 1982.
6. 박찬의: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효율성에 관한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7. 방용자, 김혜자: 일부 종합병원 간호원의 실무교육 수용정도와 직무민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4(2):39~53, 1985.
8. 우옥자, 서문자, 박정호: 임상간호원에 대한 직업의 민족도 및 이직에 미친 반응, 최신의학 15 (3):365~371, 1972.
9. 유병위: 직무민족과 직무 관련 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10. 이성은: 종합병원 사무직원의 직무민족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1. 이재학: 한국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2. 이종영: 임상간호원의 직업민족도 및 이에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13. 정현숙: 간호원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와 직무민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7. Herzberg FI, Ziegler DJ: Personality theori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6.
8. Kahn RL: Production and job satisfaction.

- Personnel Psychology 275-289, 1965.
9. Likert R.: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41-50, 1958.
  10. Longest BB: Job satisfaction for RN in the hospit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May-June: 46, 1974.
  11. Love JE: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atisfaction and individual job satisfaction. Am. J. Med. Tech. 43 (12): 1135-1143, 1977.
  12. Marthy J.: A survey of attitudes toward two motivating factors. Am. J. Med. Tech. 43 (12): 673-677, 1977.
  13. McMahon JT, Ivancevich JM, Matteson MT: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
  - zational climate and job satisfac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Am. J. Med. Tech. 43: 15-19, 1977.
  14. Oliver RE: Interpersonal values and job satisfac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Am. J. Med. Tech. 44: 855-858, 1978.
  15. Porter LW, Lawler EE: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p. 165, 1968.
  16. Schultz D.: Text book of growth psychology. New York, Litton Educational Publishing Inc., 1977.
  17. Stamps PL, Piedmont EB, Slavitt DB, et al.: Measurement of Work satisfaction among health professionals. Medical Care 16 (4): 337-349, 1978.

## [부 롤]

###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과 인식도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물리치료사들의 직무만족과 직무 인식도를 조사하여 인사관리와 업무 계획시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솔직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6.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재활의학기술학교실

이경홍·이충희 드림

해당란에 V표를 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 I. 일반적 사항

1. 연령 만 \_\_\_\_\_ 세
2. 성 (1) 남 \_\_\_\_\_ (2) 여 \_\_\_\_\_
3. 결혼 여부 (1) 결혼 \_\_\_\_\_ 만 \_\_\_\_\_ 년째  
 (2) 미혼 \_\_\_\_\_  
 (3) 이혼 또는 별거 \_\_\_\_\_ (4) 사별 \_\_\_\_\_
4. 근무처  
 (1) 종합병원 \_\_\_\_\_ (2) 병원 \_\_\_\_\_ (3) 의원 \_\_\_\_\_  
 (4) 재활원 \_\_\_\_\_ (5) 특수학교 \_\_\_\_\_ (6) 기타 \_\_\_\_\_
5. 종교  
 (1) 기독교 \_\_\_\_\_ (2) 천주교 \_\_\_\_\_ (3) 불교 \_\_\_\_\_  
 (4) 기타 \_\_\_\_\_ (5) 무종교 \_\_\_\_\_